

### 3. 순천과 여수의 정치상황

전남 동부지역은 1948년 초까지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좌익과 우익이 어느 정도 공존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5·10단독선거 저지투쟁 과정에서 이 지역 군중들의 습격과 테러사건의 빈도와 정도는 다른 지역보다 결코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해방 이후 인민위원회와 그에 연계된 조직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기본 골격은 어느 정도 온존할 수 있었던 동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1948년 중반기까지도 온건좌익세력 혹은 그 동조세력이 적잖게 존재하였다. 그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여순사건 직전 여수와 순천은 ‘빨갱이의 소굴’이었다는 표현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1948년 전반기의 정치투쟁을 여순사건의 진원지인 여수에 국한해볼 때 민전과 남로당이 주도한 2·7 구국투쟁 과정의 전국적인 총파업(2. 7~2. 10.)기간 중 여수의 철도·항만노조 5,000명이 대규모로 시위에 참가하였을 뿐 폭력사건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후 남로당이 주도한 5·10단독선거 저지투쟁 과정에서 선거당일 투표소 습격사건 1건이 기록되고 있을 뿐이며, 그나마 군중동원이나 폭력의 정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맹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양상을 보였다. 5·10단독선거 직전에 전남에서 13개 학교가 맹휴에 참가했다. 여수에서는 여수중학, 여수농업학교, 여수여중 학생들이 맹휴에 참가했는데 순천에서의 맹휴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5·10단독선거 저지투쟁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활동은 여순사건이 폭발했을 때 학생들의 선도적인 역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48년 전반기 ‘정치투쟁’ 과정에서 여수와 순천지역은 전라남도 다른 지역에 비해 온건좌익과 그 동조세력이 광범위하게 존재했으며, 상대적으로 남로당의 영향력이 미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수와 순천지역의 온건좌익 및 그 동조세력은 5·10단독선거 후 남로당의 이른바 ‘지하선거’와 9월 이후 본격화하기 시작한 ‘인공기계양투쟁’과 ‘양군철수’ 주장을 통해 서서히 급진적으로 바뀐 것 같다. 한편 5·10단독선거 후인 6월과 7월에도 군중들 혹은 무장단체들의 경찰서 습격, 우익테러가 계속 나타났다. 이러한 사건들이 빈발했던 지역의 향보단은 5월 22일 공식적으로 해체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평화유지단·의용단 등으로 계속 존속했는데 여수와 순천에서는 이 같은 경찰보조조직 혹은 민간통제조직이 존속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은 여순사건 발발 때 여수와 순천에서 군중들이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단선단정 반대투쟁이 절정에 달했으며, 동시에 춘궁기까지 겹치는 1948년 5월 초에 광주의 제4연대 1개 대대병력을 골격으로 여수에 제14연대가 창설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순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그 이유는 첫째, 제4연대 1개 대대병력 중에는 영암 군경충돌사건을 경험했던 사병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기간요원 가운데는 여순사건의 주모자인 지창수 상사를 비롯 김지회·홍순석 중위 등 좌익계 간부들이 적잖게 있었다. 이는 제4연대가 창설 초기부터 여순사건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사병의 모병작업이 전남 일원의 장정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신원조회 없이 실행됐던 결과 5·10단독선거 저지투쟁이 가장 치열했던 지역 중의 하나인 전라남도의 경찰수배자가 다수 입대할 수 있었고, 또한 실업자·범죄자도 입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14연대는 전라남도 좌익들의 은둔처였으며, 동시에 좌익의 선동에 쉽게 동조할 수 있는 계층출신의 사병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어느 집단보다 반경(反警)사상이 높았다.

이런 정치적 어려움 외에도 해방 직후의 일반 농민, 주민들의 생활은 대단히 궁핍한 상황이었다. 해방에서 돌아온 귀환동포들의 급작스런 증가도 원인이었지만, 미군정의 미곡수집령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의 군정당국에 대한 원성이 높아가고 있었다.

여수에서는 1948년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의 2기분 배급을 주지 않아서 8만 여수읍민의 원성이

높은 실정이었다. 식량영단 당국은 2기분 배급식량으로 백미 2,900포, 잡곡 4,200포 등 합계 7,100포를 도정하여 분배하여야 하나, 도정공장에서 이윤이 박하다 하여 도정을 하지 않아 여수 군민의 생계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식량영단이 가공을 의뢰한 공장에서는 쌀을 빼돌리고 대신 모래를 보충하는가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천 가마씩을 착복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비료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 값으로 공출한 쌀을 양정당국의 부주의로 부패시키는 등의 실정을 농민들이 직접 목격함으로써, 양식을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여수시민들의 원성은 대단히 높은 상태에 있었다.<sup>1)</sup>

이러한 행정당국의 실정과 더불어, 1948년 7월의 수해로 각 지방에 이재민들이 무더기로 발생하였다. 이 수해로 여수에서는 1948년 7월 7일 벼 707가마가 피해를 입어 여수읍민들의 식량사정이 대단히 좋지 않은 실정이었다.<sup>2)</sup> 이에 순천 인근의 주민들은 동정을 요구하고자 구제회(救濟會)를 조직하고 구제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순천에서도 대한민족청년단 순천읍단부에서 4,240원, 순천전매서직원들이 1,000원, 순천상공회에서 5,000원을 기탁할 정도로 당시의 수해피해는 대단히 컸다.<sup>3)</sup>

#### 참고자료

박현채·황남준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최장집 편, *한국현대사* 1, 열음사, 1985.

*한국전쟁사—해방과 건군* 제1권, 1967.

R.K.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 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김점근, *한국전쟁과 남로당전략*, 박영사, 1983.

김남식, *탐로당 연구*, 돌베개, 1984.

박일원, *탐로당의 조직과 전술*, 세계북간, 1984.

대검찰청 수사국, *확약사건 실록*.

G-2, *Periodic Report*, USAFIK

순천문화원, *순천승주향토지*, 1975.

여수문화원, *여수여천향토지*.

---

1) *호남신문* 1948. 9. 2.

2) *호남신문* 1948. 10. 1.

3) *호남신문* 1948. 9. 10.

